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3 Number 03 03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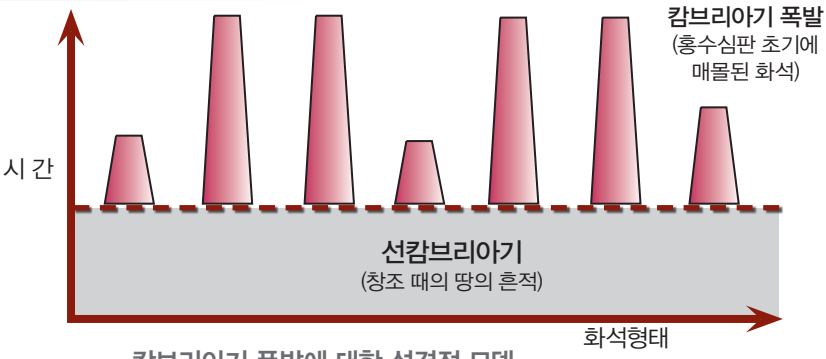
캄브리아기에 많이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

진화론자들에게 캄브리아기 시대의 상상도이지만 역으로 홍수 심판 이전의 바다 밑바닥의 상상도이기도 하다.

캄브리아기 폭발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 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Cambrian fossil explosi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화석이란 단어를 빼고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도 함). 화석을 진화의 순서로 책에 모아놓은 지질시대표를 보면 본격적인 화석이 등장하는 시대가 있는데, 즉 고생대 가장 아래 있는 캄브리아기이다. 이 시대의 지층에서 대부분의 산호, 삼엽충, 불가사리, 해파리, 조개 등 해양 하등 동물 화석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지질시대표를 장식하는 전체 화석 가운데 이 시대에서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를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진화론적 연대로 5억년 전 경을 말한다. 물론 이 연대는 화석이나 지층을 직접 측정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P.O.Box 819, Norwalk, CA 90650 / TEL 562 868 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캄브리아기 폭발에 대한 성경적 모델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모든 주된 동물의 문(門 분류학상의 문)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은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골치거리 중에 하나이다. 앞선 조상 없이 바로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화석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 전이형태 화석이 없는 것 등 어느 하나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2002년 사망하기 전까지 진화론자의 대부 격이었던 굴드(Stephen J Gould)는 이에 대한 고백을 여럿 남겨놓았다.

"화석기록은 다윈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주었다. 그에게 캄브리아기 폭발보다 고민거리는 없었다. 거의 모든 복잡한 생명체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The Panda's Thumb, 1980, pp. 238–239.)

"캄브리아기 폭발은 지질학적인 순간에 발생했는데… 새로운 데이터들은 (화석이) 느리고 꾸준히 점진적인 연속성을 드러낼 것이란 다윈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세기의 (화석에 관한) 모든 주요 발견들이 보여준 것은 형성된 사건이 거대함과 지질학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생각을 증가시켜왔다." (Nature, vol. 377, October 1995, p.682.)

"캄브리아기 폭발은 생물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풀기 어려운 사건이다." ("The Evolution of Life," in Schopf, Evolution: Facts and Fallacies, 1999, p. 9.)

굴드가 고백했던 것처럼 캄브리아기 폭발은 진화론자들에게는 풀기 난감한 문제이다. 반면에 창조론자들에겐 진화론을 반박하는 좋은 도구일 뿐 아니라 성경 역사에 대한 훌륭한 증거로 사용되어왔다. 전이형태 화석이 없이 완전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화석으로 매몰되기 전에 "종류대로" 창조된 창세기 1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완벽하게 보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창조된 이래로 갑작스럽게 매몰시켰던 전지구적인 격변인 홍수심판의 증거인 것이다.

특별히 홍수심판 초기 당시 낮은 지역인 바다 밑바닥에 살았던 해양 무척추동물들이 가장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 속에 살거나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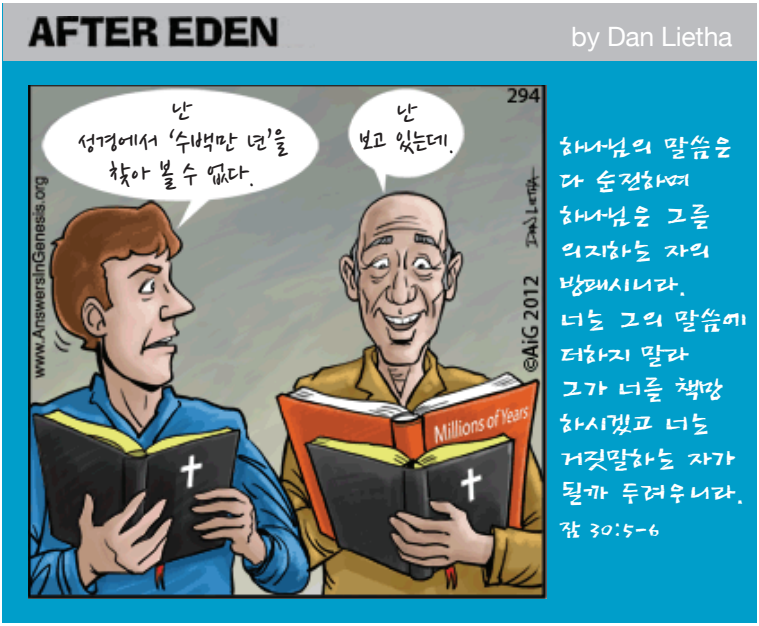
있는 다른 생물보다 바닥에 살기 때문에 밀려오는 흙에 의해 상대적으로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매몰된 화석들이 다른 화석들 보다 가장 밑에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화석이 갑자기 발견되는 캄브리아기 지층 아래는 어떨까? 화석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아래 지층을 뭉뚱그려서 캄브리아기 이전인 선(先)캄브리아기(Precambrian)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두 층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 창조를 믿는 창조과학자들에게는 해결하기 아주 쉬울 뿐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캄브리아기 지층은 홍수심판 이전에 창조 주간에 만들어진 땅이다. 창조된 이후부터 홍수심판 이전에는 격변이 없었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이 번창한 후에 격변적 홍수심판 때 화석들이 매몰되었을 텐데 이때 가장 하부의 화석들이 소위 말하는 캄브리아기 폭발에서 발견된 화석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은 진화론적으로는 수수께끼지만, 성경적으로는 너무 쉽고 훌륭한 증거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고정된 종류 vs. 무한한 다양성

각각의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 성경에서 '종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min)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고정 되어 있다(fixed)' 혹은 '한계 안에 갇혀 있다(limited)' 즉 다른 종류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각 생명체들이 창조 이후 변하지 않고 그 종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종류대로' 창조 된 증거는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관찰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현재 생물체의 모습과 화석의 모습은 서로 같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대표작인『종의기원』마지막 개정판(6판 p. 413. 1872년)에서 중간고리 화석이 단 한 개도 없다고 고백하였다. 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은 진화론자도 믿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진화의 증거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렇다고 생명체들은 부모와 100%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도 않는다. 같은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들은 언제나 다르다. 진화론은 이 변화를 확대 해석하여 진화의 증거로 삼았다. 그 결과로 나온 용어가 "소진화(micro-evolution)"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잘 못 선택된 것이다. 올바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변이(variation)"이다. 진화론은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억 년의 장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변이를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변이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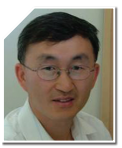
만약 아들은 아빠와 100% 같고 딸은 엄마와 100% 같게 태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있는 같은 또래의 모든 남자는 다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도 나이 차이만 있지 모두 같게 보일 것이다. 개들도 하나같이 똑같고 모든 고양이들도 다 똑같다면 어떨까? 변이가 없는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창조자는 각각의 생명체들에게 각각의 한계 안에서 독특한 모습을 갖도록 디자인 하신 것이다.

변이(variation)의 비밀은 유전정보의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에 있다. 난자나 정자 혹은 암술이나 수술이 만들어 질 때는 부모의 유전정보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정보의 재조합이 일어나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각 부모에게서 한 벌씩 물려 받은 유전정보에는 같은 정보가 들어 있지만 두 개의 성능이 똑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 피부색을 만드는 멜라닌 유전정보를 각 부모에게서 한 벌씩 물려 받지만 아빠의 유전정보의 성능이 엄마의 것보다 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모양이나 색깔, 손톱의 모양, 귓불의 모양, 성장 호르몬 생산 능력 등 수 만 가지의 유전정보가 있는데, 난자나 정자가 만들어 질 때는 성능이 각각 다른 두 가능성 중 한 개씩만 선택되어 새로운 한 벌의 유전정보가 구성된다. 이 과정이 유전정보 재조합이다.

유전정보 재조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난자와 정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유전정보의 조합이 된다. 사람의 경우 약 25,000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각 유전자는 부부간에 평균 6.7% 정도 다르다고 한다. 이 유전자만을 가지고 재조합을 시도해 보아도 무려 10^{504}(= $2^{25000X0,067}$)이나 되는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가 생겨날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총 수가 10^{80}이므로 사람의 변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변이는 2%의 유전정보(유전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98%의 표현되지 않는 부분(non-coding DNA)에서도 일어난다. 이 무궁무진한 변이의 가능성을 통해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두려운(fearful) 능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변이는 '종류대로' 창조 된 생명체들과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쉽사리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의 한 가지 장치다. 처음 창조 된 생명체들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던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빙하시대의 결과로 추위와 더위가 극심해졌고 사막 같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 생겨났다. 만약 변이 가능성이 없었다면 창조 된 종류들이 너무나도 쉽게 멸종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각 종류들은 각각의 한계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털이 길어 추운 곳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개가 생겨 날 수 있고, 피부가 검어 자외선이 강력한 적도 근처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겨 날 수 있고, 등에 솟아 오른 혹에 지방을 축적하여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낙타가 생겨 날 수 있는 것이다. 무한한 변이 가능성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창조주의 뜻과 배려가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변이에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능력과 지혜와 배려가 들어 있다. 완전히 분리(고정)된 종류 안에서 한없는 다양함을 가능케 하시는 경외로운 하나님은 그 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지난 2월 2-10일 대구화원교회(담임목사 신용기)에서 8박 9일간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51명이 참석하였으며 모두 청년대학부 소속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해 8월 부모님들의 참석 이후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는 세밀함으로 시작하여 많은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의 위험성을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화원교회에서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참석자 중에 두 명은 부산의 창조과학 미주탐사 후원회의 전적인 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모집 창조과학탐사

지난 2월 14-16일 YWAM과 '이방의 빛'을 중심으로 모집으로 창조과학탐사를 가졌습니다. 총 39명이 참석하였으며 3일 동안 그랜드캐년과 Sunset 분화구를 둘러보며 홍수심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부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2016년 1월에 다시 부활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중단되어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기간은 1월 4-7일 나흘 간입니다. 횟수로는 17차입니

ITCM 6기 필드트립

대구화원교회

YWAM 탐사

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 공고합니다. 귀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께 감사 드립니다.

제 6기 ITCM 종료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6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이 8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14일 훈련기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자는 총 8명이었으며(고석상, 김항구, 송종원, 이지연, 이현정, 정찬영, 조항윤, 황효정), 조교로 지난 5기 과정을 수료한 최선희 자매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8주 동안 성경공부, 세미나, 독서, 창조과학탐사, 야외답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임하고 견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수료자들이 ITCM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 진화론 시대인 오늘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일군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번 6기 ITCM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의 후원을 통해 부족함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 7기 ITCM은 2015년 12월 21일에 시작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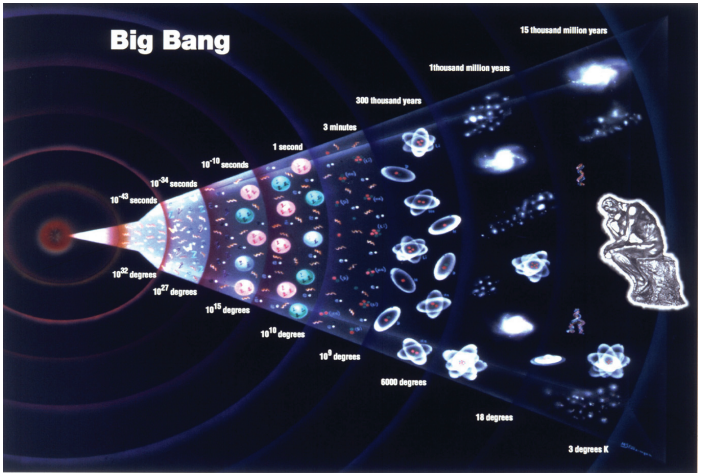
ITCM 끝나고 한 마디

"아직까지 남아 있던 지질시대표가 마음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송종원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이야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찬영
"말씀과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 조항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지현
"그동안 우물 안에 갖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ITCM을 통해 창조과학의 영향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 황효정
"이 사역에 평생을 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김항구
"결과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정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말씀이 분명해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번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 이현정
"어려울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고석상

최우성 박사

전임사역자인 최우성 박사는 지난 1월 설암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ITCM 강의도 조금씩 하였지만 아직도 통증이 있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음까지 온전히 빠르게 회복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TCM 6기 수업



138억년의 우주나이, **검증** 되었나요?

1999년 5월 25일 미항공우주연구원NASA는 "허블 천체망원경이 팽창하는 우주를 측정하다"라는 특집 발표를 한 바 있다.[1] 그리고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부터 얻은 결과들이 우주의 나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을 비롯 전세계 연구기관들로 부터27명의 천문학자들이 참가하는 허블천체 망원경 프로젝트팀(HSTKP)은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far-flung galaxies)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였다고 공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나이는 대폭발(빅뱅)로 시작하여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최근 이론과 관찰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년이며 여러 연구프로젝트들을 통하여 그 오차 범위가 좁혀졌다고 항공우주연구원(NASA)은 주장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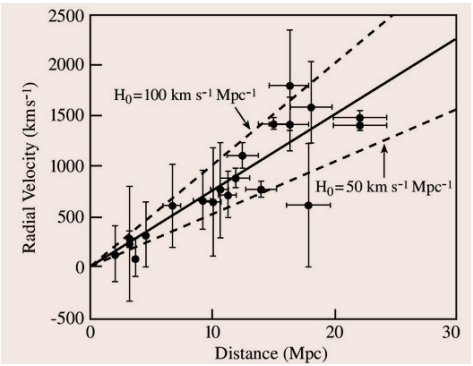
천문우주에서 우주 나이의 계산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먼저 허블도표(그림)를 작성하고 그 도표로 부터 은하들을 포함하는 직선을 긋고 허블상수를 정한다. 그리고 그 허블상수로 부터 우주의 나이를 계산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구로 부터 은하의 거리(d)를 알고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은하의 퇴행속도(v)를 알면 그림과 같은 허블도표(Hubble Plot)를 만들 수 있다. 그림에서 가로 축은 은하의 거리이고 세로 축은 은하의 퇴행 속도이다. 은하들이 멀어져가는 속도와 거리의 분포를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는 모든 은하를 포함하는 상한 직선과 하한 직선을 그어 볼 수 있다. 허블상수(H)는 그 직선의 평균 기울기가 된다. 일단 이렇게 허블상수가 결정되면 이를 역수로 취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만일 허블상수 값이 50Km/secMpc라면 이를 역수로 취한 우주의 나이는 1/50 Mpc sec/Km인데 여기서 단위pc는 3.26 광년 거리 (pc= 3 x 1013Km)이고 일년은 약 3 x 107sec이므로 우주의 나이는2 x 1010년, 즉 200억년이되는 계산이 된다.

허블이 처음 허블상수를 결정하였을 때 그 값은 500Km/secMpc 보다 더 큰 수치였다. 그런데 1960년에는 그 값을 50Km/secMpc로 낮게 정한 바 있고, 그 후 1990년 새로운 주장으로 80Km/secMpc로 정정되었지만 오랫 동안 학자들 간에 이견은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앞에서 보였듯이 우주의 팽창속도가 우주 나이를 결정하는데 관건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보다 정확한 허블상수를 구하는데 촛점을 두었다. 1990년 NASA의 허블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의 핵심 임무가 바로 정확한 허블상수를 추정하는 일이었다. 허블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기 전까지 우주의 팽창률 범위를50~100Km/secMpc로 보았는데, 허블 프로그램을 통하여 허블상수를 72.5Km/secMpc로 정하게 되었다.



허블도표 Hubble Plot

하버드대 커스너(Robert Kirshner) 박사는 "과거 두배 이상 부정확 했지만 이제는 10% 정도로 오차가 좁혀졌다. 또 같은 연구팀의 아리조나대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AZ) 케니컷(Robert Kennicutt) 교수는 "이제 오차에 대한 반론은 종식되었다!"고 그 정확성에 대하여 단언하고 있다.[1]

다시 말하지만 우주의 나이는 은하들의 거리와 각각 그 은하들이 멀어져 가는 퇴행(팽창)속도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과거에 은하들의 퇴행속도가 빨랐다면 우주가 현재 크기가 되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반대로 속도가 느렸다면 우주는 그 만큼 더 오랜 나이가 될 것이다. 더욱이 허블 도표에서 보여주는 직선의 그래프처럼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등속으로 팽창해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허블 상수의 역수를 통해 구해진 우주 나이는 실제 우주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결국, 과학은 그 은하들이 한 점에서 출발하였는지 과거에도 역시 동일한 속도로 멀어져 왔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우주의 나이 계산에서 핵심은 허블상수인데 이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팽창의 증거로 적색편이(Redshift)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빅뱅이론 자체가 여러 가설위에 세워졌으며 더욱이 발견된 과학적 데이터들은 이 이론을 거부한다. 따라서 오늘 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의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참고: An Open Letter to the Scientific Community, cosmologystatement.org, Published in New Scientist, May 22, 2004), (관련 된 내용은Creation Truth 11–2008빅뱅은 과학적인가? Creation Truth 01–2010적색편이는 성경을 부인하는가?를 참조). 결론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1] NASA Science News, Hubble Measures the Expanding Universe, NASA HQ press release, May 25, 1999(http://science.nasa.gov/newhome/headlines/ast25may99_1.htm).
[2] Suyu et al., Precision Measurements of the Hubble Constant, Spatial Curvature, and the Dark Energy Equation of State. The Astrophysical Journal; 711 (1): 201 DOI: 10.1088/0004-637X/711/1/201, 2010.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염색체

더 커다란 차이점을 보입니다

2005년 침팬지의 유전체(genome)에 대한 최초 보고 이후, 연구자들은 세금을 받아 추가적인 침팬지의 DNA 서열을 얻었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DNA 서열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 그것은 자신의 실제 값을 잘 대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침팬지의 유전체 서열 조각들을 인간의 유전체 틀에 기반해서 배열했기 때문입니다.

ICR 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침팬지 유전체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염색체에 기반한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순차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침팬지의 염색체를 다양한 길이의 DNA 서열을 가진 개별적인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염색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적의 조각 크기는 약 300개에서 500개의 DNA염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각 조각들을 이전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의 기준을 이용해서 대응관계에 있는 인간의 유전자와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이용하여, 침팬지의 염색체 상의 위치와는 상관 없이, 각 염색체의 비교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ICR 연구 프로젝트는 인간의 DNA와 일치하는 침팬지의 DNA비율로써 각 염색체의 유사성을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 유사성은 실제보다 더 많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팬지의 DNA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DNA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유전체 조합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도 다른

연구 프로젝트는 인간의 DNA와 일치하는 침팬지의 DNA비율로써 각 염색체의 유사성을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 유사성은 실제보다 더 많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팬지의 DNA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DNA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침팬지의 DNA또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의 주요 상염색체에 관하여,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정렬된 DNA의 양은 염색체에 따라 66 %에서 76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유전자가 밀집된 염색체들의 염기 서열이 더 비슷했지만,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도 있었습니다. 침팬지의 X 염색체 (여성 염색체)의 69 %, 그리고 Y염색체의 43 %만이 인간의 DNA와 비슷했습니다. 유전체 전체로 보았을 때, 최적의 DNA 서열 조건에서도 단지 70 %의 침팬지 유전체 조합이 인간의 DNA와 비슷했을 뿐입니다. 이는 실제로 생략된 데이타가 포함되었을 때,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DNA 유사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는 과거의 세속적 보고에 대한 연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단백질 코딩 영역(coding region)에서 많은 DNA 유사성을 보이긴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유전체의 극단적 불연속성은 진화론적 시간대 및 공통 조상에 관한 독단적인 전제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이 단지 유인원의 하나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창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유전적, 성경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Jeffrey Tomkins, Ph.D. ICR 연구원
번역 이충현, DMD

창조과학 탐사

간 증 | 오랜지카운티목회자부부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은 일생에 가장 귀한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이 시대에 수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님의 해박한 설명들은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 *김영재 〈California 신학대학원 학감〉*

짧은 여행의 마무리를 지으며 성경 말씀과 너무도 멀어져 버린 시대를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감당치 못함에 회개했습니다. 나머지 삶에 말씀을 분명히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에 잘 전달하고 왔다고 고백하기 원한다. – *김미정〈얼바인 온누리교회〉*

몇 년 전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시청각 교육의 이 탐사여행은 오랫동안 기억될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 사역이 나에게서 흘러넘쳐 내 가족, 교인들, 친구들에게 까지 함께 되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해본다. – *박경희〈섬김의교회〉*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동안 소홀히 해온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진화의 반대가 창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강의에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기회 또한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박승우*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해야겠습니다. – *정영희 〈오랜지 새영교회〉*

늘 기대하고 소망했던 창조과학 탐사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중요성과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확고한 지식과 배경에 대해 알고 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명에 대해 더욱 깨닫고 갑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와 이재만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이광호, 이명아 〈소명교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박 3일의 시간이 꿈과 같이 아름답게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만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여행에 동참하고 싶기도 합니다. 창조의 사건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맘껏 누렸습니다. 창조의 첫날을 그리며… – *이창남, 이혜정 〈주님의손길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여 창조면 창조고 과학이면 과학이지 이것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여기에 흠뻑 빠졌으며 나에게 의문점이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 창조과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양금호 〈갈보리중앙교회〉*

올 형편이 전혀 안되었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만사 제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꼈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에 덮여있는 오늘의 현실에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무나 분명한 창조의 사실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이 공부를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거짓과 미혹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바른 사실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꼭 가르쳐야겠음을 느꼈습니다. – *박진희 〈임마누엘교회〉*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 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역사를 보게 되고 마귀의 마지막 카드가 진화론임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고 이 잘못된 진화론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성경이 유일 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됨. 지구는 많은 별 중의 하나가 아니고 우주 상에 유일 무이한 생명체와 특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며 우주의 center 임을 확인하게 됨. 성경을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다. – *이용일 〈새성지예일교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현장 검증으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사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격이었습니다. 말씀의 깊이나 넓이를 창조를 통하여 해박하게 증거해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탄의 진화론을 통화여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심령을 황폐케 한 엄청난 현상을 말씀 증거를 통해 새롭게 체험케 하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윤건상 〈주님의 마음교회〉*

1년 동안 벼루어 왔던 창조과학탐사여행, 진화론적인 사고에 젖어 지구의 나이가 7000년 정도인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 *백인호 〈얼바인온누리교회〉*

이전에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는 너무 웅장하고 멋있었다. 그런데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니 전과 같이 아름답지 않았다. 그대신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여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그려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였던 아름다운 그 처음 세상을! – *이천선 〈형제교회〉*

두 번째 탐사여행이 더욱 좋다. 모든 강의는 처음의 것이 더 좋았다고 하셨는데 탐사여행은 뒤에 것이 더 좋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더 많은 앎과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오상규 〈남가주 예수사랑교회〉*

말씀이 사실로 와 닿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 감격을 복음 전파에 그대로 잘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진화론이 교과서에서 없어지는 그 날까지 열심히 주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주희선 〈남가주 예수사랑교회〉*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실 것 같아 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저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성경, 기도, 목회, 사역 그렇게 많이 했건만 정작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젠 철저하게 성경을 정독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 *신향 〈플러튼 제일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5 ACT Schedule

3/6-8	창조과학선교회 speaker 모임
3/25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CA
3/29	오렌지한인교회 (이재만), CA
4/7-10	창조과학탐사 (R&R), 이재만
4/11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CA
4/13-17	창조과학탐사 (수원성교회), 이재만
4/18	얼바인열린교회 (이재만), CA
4/20-26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4/27-5/4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5/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5/11-14	창조과학탐사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5/16-21	창조과학탐사 (천안제자교회), 이재만
5/21-27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3-25	창조과학탐사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김선욱
5/28-6/4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5-6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이재만), WA
6/8-15	창조과학탐사 (Basic Church), 이재만
6/16-19	빙하시대탐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이재만
6/22-24	빙하시대탐사 (포모나인랜드교회), 이재만
6/27-7/5	창조과학탐사 (늘푸른교회), 이재만
7/6-11	창조과학탐사 (Compassion),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